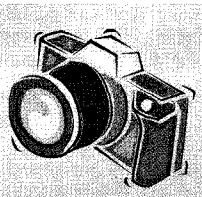
포·토·클·리·닉



왕초보를 위한 사진 촬영 기초강좌③

사진은 빛을 조각하는 조형 예술이다

사진을 결정하는 것은 노출 · 구도 · 초점 이라 했다.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되면 정말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구도와 초점은 정해진 법칙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선천적으로 감각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노출만큼은 누구도 쉽게 가르쳐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영원한 숙제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사진에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사진을 찍어봐야 한다. 노출 · 구도 · 초점에다가 '빛'을 보는 시각을 익힌다면 그야말로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빛의 방향에 따른 빛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편집자 주〉

• 빛 의 종류 (light)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했다. 따라서 빛이 없으면 사진은 전혀 촬영할 수 없다. 물론 가로등, 형광등, 백열등, 스튜디오의 light 등등 많은 빛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빛의 종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의 방향에 따른 빛의 종류를 말하려 한다.

1. 순광 또는 정면광(Froent light)

순광은 피사체의 정면으로 내리는 빛을 말한다. 즉, 촬영자를 등지고 피사체를 비추는 빛으로 정면광이라고도 한다. 처음 사진을 하면 태양을 등지고 촬영해야만이 사진을 망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순광은 피사체를 100% 깨끗하게 표현해 주기는 하지만 입체감이 없어서 작품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피사체인 사람쪽에서 태양이 정면이다 보니 눈부심에 인상을 찡그리는 사진이 될 수도 있다. 순광은 피사체를 깨끗하고 설명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광선으로 피사체 전체에 빛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기념사진, 단체사진, 기록사진 등에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그림자가 없어 입체감이나, 질감, 명암 등을 표현하는 작품에는 부적당하다. 또한 순광은 색의 재현에는 좋지만 깊이가 없고 무난한 사진이 되어 개성이 없고 심심해져 특별한 느낌을 주는 사진을 얻기는 어렵다. 허나 푸른 하늘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광선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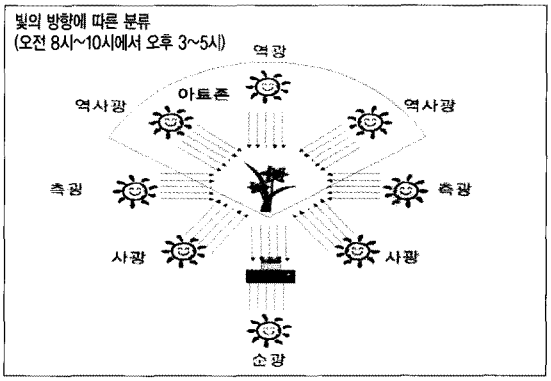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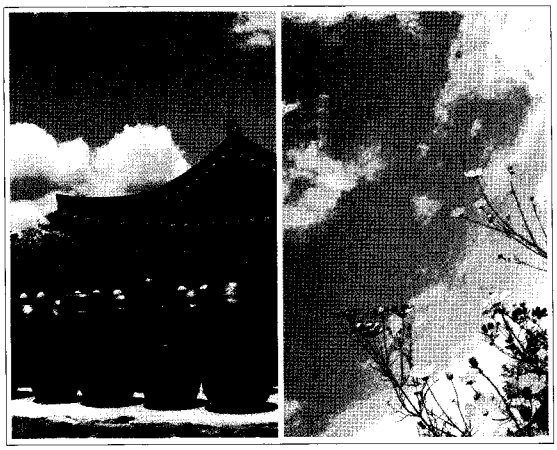


그림1. 태양빛의 방향에 따른 빛의 분류

2. 사 광(Plane light)

사광은 피사체의 앞쪽, 좌우측에서 45° 정도의 각도로 비치는 광선을 말한다. 피사체의 3/4정도가 밝고 1/4정도가 어둡게 나오는 광선으로 질감이나 입체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광선이라고 하겠다. 사광은 기본적인 광선으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광선이므로 피사체를 한발작만 옆으로 이동시켜 해를 바라보도록 해보면 실패하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물사진뿐 아니라 풍경사진에도 적합하여 여러모로 널리 사용되는 광선이다. 인물 촬영에 가장 적합하여 이 광선은 주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제1. 푸른하늘을 배경으로 순광으로 찍은 사진들

3. 측 광(Side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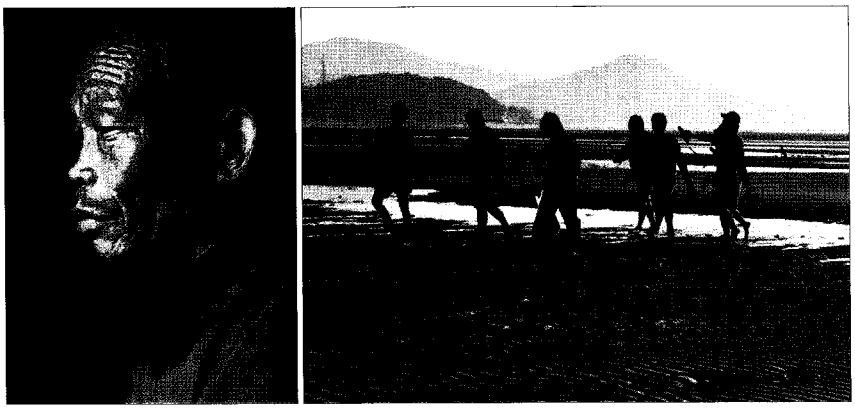
측광은 측면광의 줄임말로서 피사체의 양쪽 90° 의 각에서 비치는 광선을 말한다. 빛이 비추는 곳의 반쪽은 밝으나 나머지 반쪽은 어둡게 나타나게 된다. 태양의 위치가 90도 방향인 광선으로 측광은 피사체의 입체감을 잘 표현해주는 광선이다. 그러나 인물촬영에 그리 적절한 광선은 아니다. 노인의 주름살을 깊게 표현하여 세월의 흔적과 삶의 굴곡을 표현할 때나, 근육질 남성미(가슴의 王자)를 표현, 카리스마 넘치는 파워를 나타내고자할 때 사용하는 광선이다.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촬영할 때는 절대로 이 광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늙어 보여서 실망하실 테니까……. 허나 깊게 패인 촌부의 이마나, 많은 자녀들을 키워 내고 가르치시느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거친 손을 나타내므로 해서 사진 한 장으로 함축된 사연을 전달할 수 있겠다. 바닷가의 파도가 그려놓은 물결무늬의 표현에도 적합하다.

예제2. 사광으로 찍은 인물 사진

4. 역사광 또는 반역광(Rembrandt light)

역사광(반역광)은 피사체의 뒤쪽에서 카메라를 향해 45° 정도의 각도로 비치는 광선으로 램브란트광선 이라고도 한다. 피사체의 3/4정도는 어둡고 1/4정도는 밝게 나타나는 광선이다.

화가 램브란트(rembrandt)는 대표적인 빛과 명암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색과 모양이 모두 빛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 케이스로 색채 및 명암의 대조를 강조함으로써 종교적인 영험스러움을 보여준다. 후사광(Rim light 또는 Rembrandt light)으로 램브란트 광선이라 불리는 것은 램브란트가 즐겨 그린 조명으로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명암 차가 뚜렷하게 나타내는 분위기의 사진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어둠 속에 측면이 강조되고 흉하지 않은 입체감과 질감을 얻을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보조광을 사용할 수 있는 촬영의 경우에는 반사판이나 보조광을 사용하여 다소간의 보정을 할 수 있다. 야외촬영에서도 반사판이나 보조광과 함께 모델사진이나 예술작품사진에 많이 쓰인다. 이러한 반역광의 특징은 대비가 강하고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알맞은 광선으로서 개성 있거나 드라마틱한



예제3. 측광으로 찍은 인물 사진과 바닷가 배경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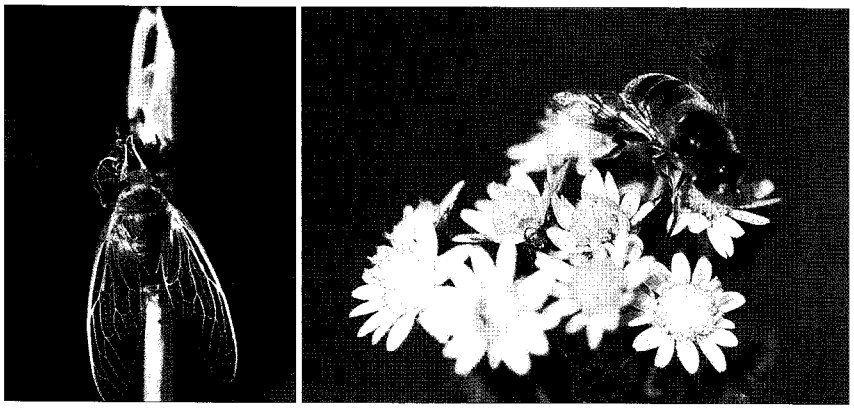
사진을 촬영할 때 이용한다. 필자는 '클레오파트라' 를 떠올리곤 한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한 一 자) 로 자른 앞머리와 단발머리의 강한 이미지, 높은 콧날의 옆선(코가 1cm만 더 높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한)을 가진 클레오파트라의 얼굴, 그녀를 강하게 인식시키는데 이보다 적절한 빛이 있을까? 오래전, '비비안 리' 가 연기한 그녀의 모습에서 받은 강한 인상이 내게 각인되어 한때 젊어서는 클레오파트라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기도 하였다. 사실은 윤곽선이 조각 같은 배우들이 그녀의 역할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녀를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기억하지만, 엄숙하고 평범한 얼굴에 불과 150cm 남짓한 작은 키, 통통한 몸매에, 수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학자풍' 이며 '외교에 능숙한 전략가' 였다고 한다. 격동기의 왕국을 능숙하게 통치했던 강한 여성 '클레오파트라' 는 개선식 퍼레이드의 전리품으로서 망신을 당하기 싫어 과일바구니 안에 독사를 들여와 이집트 왕녀의 정장차림으로 죽음을 맞이해 끝내 자존심을 지켰다고 한다. 영화 속의 그녀든, 실체의 그녀든 간에 언젠가는 클레오파트라 하면, 함께 연상되는 '코브라' 와 같이 작품을 한번 담고 싶다.

예제4. 역사광으로 찍은 인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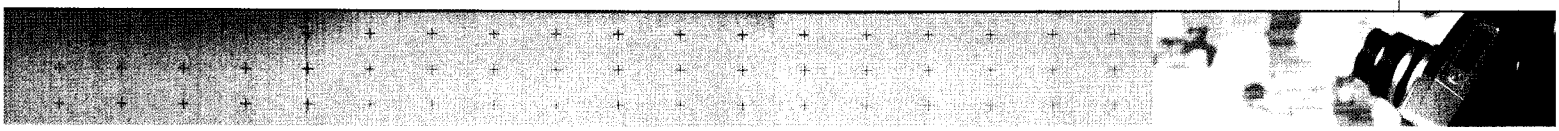
5. 역 광(Back light)

역광은 순광과 반대로, 피사체의 뒤쪽에서 정면을 향해 비치는 광선이므로 촬영자 정면에서 비추는 빛선이 살지만 앞쪽이 그늘지기 때문에 촬영 테크닉이 요구되는 빛이다. 일반적으로 역광 촬영시 좋은 사진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는 강한 빛을 바라보며 촬영하다보니 카메라의 자동측광이 조리개를 조이거나 셔터속도를 빠르게 하여 정작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아주 어둡게 나오기 때문이다. 허나 사물의 실루엣(실루엣은 여인의 얼굴 옆모습 곡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피사체의 외곽선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창문가에 서있는 사람의 외곽선만 나타내고, 얼굴의 표정은 안 나타나게 촬영하는 것도 역광을 이용한 실루엣 사진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루엣 사진을 촬영할 때는 피사체의 윤곽선에 특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술작품사진은 역광에서 많이 찍는다. 의도적으로 역광 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반사판 등을 이용하여 얼굴 부분에 보조광을 주거나 플래시(스트로보)를 터트려 촬영하면 멋진 배경과 인물을 동시에 밝게 촬영할 수 있다. 방송 촬영 중에 촬영보조자들이 커다란 판을 들고 얼굴을 향해 비추는 광경등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맑은 날 꽃잎을 투시하는 역광의 꽃사진을 찍을 때 줄기나 잎의 암부 부분을 모두 표현하고자할 때 역시 보조광이나 플래시를 써보자. 특히 할미꽃이나, 노루귀, 버들강아지처럼 하얀 털을 가진 꽃들의 뽀얀 솜털은 역광으로 표현하기에 제일 적합하다.

예제5. 역광으로 찍은 황영조 동상의 실루엣과 노루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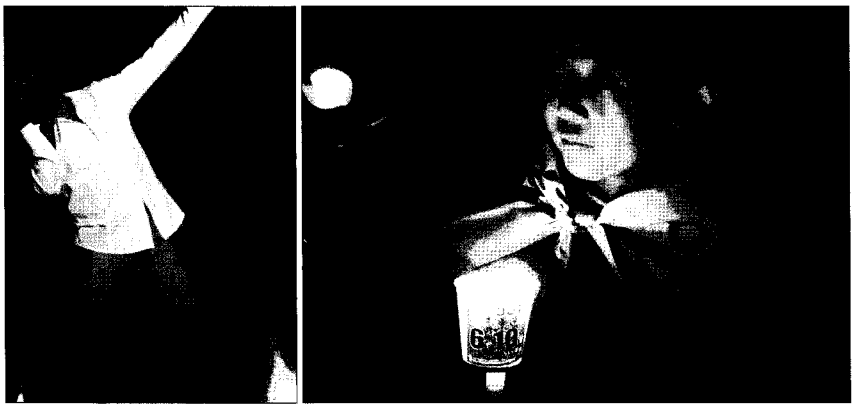


예제6. 톱 라이트로 찍은 매미와 벌의 사진



6. 톱 라이트(Top light)

톱 라이트는 피사체의 바로위에 태양이 위치하는 광선으로 사진작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빛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의 위치가 머리위에 있을 때 인물은 그림자로 어둡게 표현되지만 반대로 풍경은 선명하게 묘사된다. 또한 주로 벌이나 잠자리 등과 같은 날개가 떨리는 곤충들을 담을 때 없어서는 안 될 빛이다.



예제7. 풋 라이트로 연출한 무대조명과 촛불을 든 아이의 얼굴

7. 풋 라이트(Foot light) 또는 각광

풋 라이트는 각광이라고도 하며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조명으로 공포감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광선으로 인물을 촬영하면 피사체의 얼굴에 부자연스런 그림자가 생기고 음산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괴기스런 사진이 된다. 여름에 납량특집으로 촬영하는 모든 공포영화 및 드라마가 모두 이 라이팅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그냥 보는 것 보다 더욱 무섭고 괴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예로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갑자기 얼굴에 비춰보라. MT에서 장난기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놀래킬 때 많이 쓰는 귀신놀이 방법이다. 상품이나, 광고사진, 또는 무대조명에 필수적인 빛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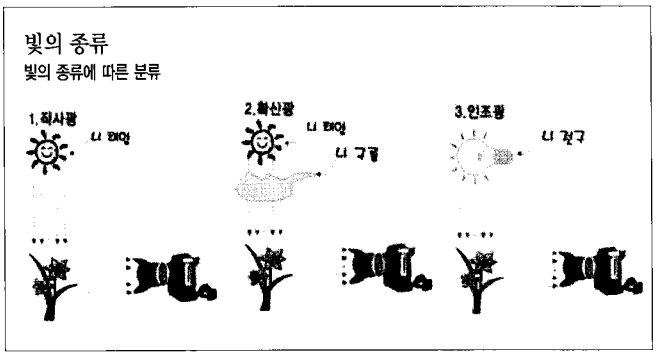


그림2. 태양빛의 성질에 따른 빛의 분류

한편, 빛의 방향에 따른 광선 말고 성질에 의한 광선으로 자연광, 직사광, 확산광, 인조광 등이 있다.

• 빛 의 각도

"빛이 있으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실내의 빛 말고도 많은 빛이 존재한다. 정오의 내리쬐는 땡볕, 흐린 날의

::: 직사광과 확산광 :::

▶ 직사광

말 그대로 태양의 강렬한 빛이 피사체에 그대로 전달되는 빛을 직사광이라 한다. 이 직사광의 경우 피사체의 콘트라스트가 강해지고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진다.

▶ 확산광

직사광에 노출된 피사체를 트레싱지(기름종이 같음) 혹은 디퓨저 같은 것으로 직사광의 빛을 가려서 확산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확산광의 효과로는 콘트라스트가 약해지고 그림자의 명암 또한 부드러워진다. 요즘은 '옴니바운스'(확산광을 할 수 있는)를 외장플래시 구입 시 옵션으로 함께 구입하면 된다. 일반적인 스튜디오에서 상품을 촬영할 때 틀을 만들고 조명을 틀밖에서 비추는 것도 확산된 부드러운 빛을 얻기 위함이다. 소프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도 빛의 세기와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 소프트 박스도 확산광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우중충한 빛, 해질녘의 어슴푸레한 빛, 깊은 숲속의 나무 사이로 부서지듯 쏟아지는 빛 등….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빛은 동틀 무렵과 해질녘이다. 낮은 해의 위치로 길게 뻗은 그림자가 피사체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며 색온도가 낮아 사진을 따뜻한 톤으로 만들어준다. 실제로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들이나 프로사진작가들은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시간대인 정오의 내리쬐는 빛을 피한다. 이유가 뭘까? 인물사진일 경우 강한 햇빛으로 인상을 쓰기 십상이고, 풍경사진일 경우 전체적으로 고른 햇빛으로 사진이 평평해져 심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낮엔 사진을 안 찍고 장소헌팅만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패션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이나 저녁 무렵보다 구름 낀 흐린날을 선호한다. 너무 드라마틱한 광선이 작품의 디테일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이용해서 멋진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 해를 정면으로 보고 피사체를 등지게 하면 피사체의 주변에 하얀 하이라이트선이 생기게 된다. 인물사진에 많이 쓰이는 역광사진이다.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햇빛이 렌즈에 맺히지 않게 하는 후드와 그림자 속의 인물을 밝혀줄 반사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똑딱이 디카들은 후드를 장착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다. 지름신이 왕림하기 전에 똑딱이로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을 더 연구하자.

비나 눈이 오는 날도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빗방울이 맺힌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맑은 날의 그것보다 더 서정적이고 눈발 날리는 거리의 아이들은 눈이 그친 후의 아이들보다 더 신이나 보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 언급한 것 모두 DSLR 렌즈교환식 카메라나, 보급형 디카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진들이다. 1969년 나사(NASA)가 인간을 달에 보낼 때 쓰던 컴퓨터의 처리속도가 1초당 3백만개 정도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슈퍼 컴퓨터였다고 한다. 그럼 지금 우리들 집집마다 있는 컴퓨터의 속도는? 그 당시 나사의 슈퍼컴퓨터보다 대략 1,000배 이상 빠른 것이라 한다.

결국 '기계는 기계일 뿐 사진은 사람이 찍는다' 필자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빛의 종류, 빛의 방향, 빛의 각도, 직사광, 확산광, 자연광, 보조광, 빛, 빛, 빛…. 결국은 언제, 어디서, 몇 시쯤, 어느 계절에, 빛을 카메라에 담았는가가 작품사진, 기록사진, 보도사진, 좋은 작품, 실패한 사진 등으로 분류된다. 모두가 무엇을 말하는가? 빛과, 앞에서 말한 노출, 측광 방식에 의한 초점이 결합되어 원하는 사진을 얻는다. 여기에다 구도까지 맞춰 준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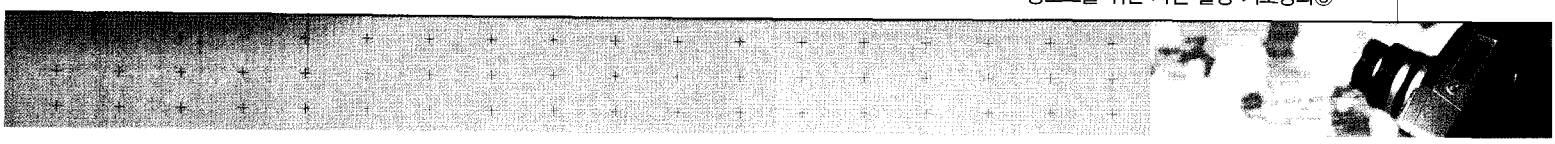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 구도까지 강의하려 했으나 빛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또한 사진에 처음 발을 내딛는 입문자를 위한 강좌이기에 설명이 길어졌다. 결론은 빛을 읽어내기 위해 매뉴얼을 보며 많이 찍어보고 공부하자는 것이다.

• "사진은 빛을 조각하는 조형예술이다."

빛은 하루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새벽, 아침, 오후, 저녁, 밤, 흐린 날, 맑은 날,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안개낀 날 등…. 주위의 사물들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은 빛의 조화에 의한, 빛이 주는 느낌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일반적으로 사진에 재미를 들이게 되면 매뉴얼대로 조리개와 셔터속도를 조합해보고 노출을 밝게도 또는 어둡게도 해보고 찍다가 어느 순간 사진을 공유하는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사진카페이든, 사진동아리이든, 함께 사진활동을 하다보면 정기 촬영에 가게 되는데 클럽에 올라오는 회원들의 사진을 보면서 '헉' 하고 비명을 지르게 된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도 그 장소에 있었건만 동아리 회원들 사진은 어찌 저렇게 쨍하고 밝고 느낌이 좋을까 똑같은 피사체를 담았는데 내사진은 '왜, 왜, 이럴까' 컴퓨터를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며 밤새 고민하고, 한숨 쉬고, 자책하고, 끝내는 카페에 올렸던 자신의 사진마저도 내리게 되고 다시 올려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유가 뭘까? 빛, 바로 빛을 읽어내지 못했거나,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아 흔들렸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뉜다 한다. 한 부류는 장비타령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멀찍이서 객관자의 자세로 지켜본다. 또 한 부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내가 보지 못한 빛을 아름답게 작품으로 그려낸 회원에게 찬사의 댓글을 남기며 다음 촬영에는 그 회원에게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서 그의 사진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따라 해보고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흉내 내기를 해본다. 모방을 해봐도 어째 신통치 않다싶으면 사진작가들의 촬영정보를 보며 그대로 적용시켜본다. 그리해도 내사진은 같아질 수가 없다.

'왜' 일까? 한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작가분이 담은 그날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정보를 똑같이 세팅해서 똑같은 구도로 찍어도 결코 사진이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라 했던가? 작가 분들의 작품을 흉내 내고 모방을



하려해도 자연스레 사진에 관련된 책을 보아야하고 촬영정보를 세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촬영장소의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느낌으로 익히게 된다. 사진은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기계의 조작, 빛의 조절, 구도, 순간 포착 등 여러 요소들이 사진을 만드는데 적용을 한다.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해서 똑같은 사진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루 동안 바뀌는 해의 위치에 따라, 피사체의 명암이 달라지며, 작가가 의도하는 그 작가만의 노하우와 개인적인 주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느낌의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서 카메라 설정을 바꿔가며 많은 사진을 찍어봐야 한다. 빛을 읽어내는 특별한 시각을 가질 때까지, 카메라 매뉴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찍고 또 찍자. 카메라가 손에 착 감길 즈음 "감" 이라는 느낌이 올 것이다. '사진의 영역은 무한하다'. '나 만의 느낌'과 '감으로' 빛을 그려내자, 빛으로 말하자, 빛으로 조각하여 종합예술을 하자.

• "플래시는 적절히 사용하자."

디지털카메라는 필름 카메라 보다 빛에 민감하여 자연광에서도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는 노출계를 내장하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ISO를 변경해가며 측거점을 이용해 빛을 측정해서 조리개 값이나, 셔터속도로 노출값을 변경한다. 반면 필름카메라는 '노출계'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노출계를 이용해 노출을 측정하거나, 감도100인 필름, 아사200, 아사400 등 감도가 표시된 필름을 사용해 필름에 약품처리를 할 때 농도를 달리 하여 빛에 반응하는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빛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ISO는 공업 규격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목적으로 1946년 창립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사진에서는 감도 표시 기호로 사용되고 있는데, ISO 감도는 기존의 ASA(미국)와 DIN(독일)의 수치를 같이 표기하기도 한다.

〈잠깐용어〉

* 트레싱지 – 확산광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름종이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 화방이나 큰 문구점에서 취급하며 큰 것을 사용할수록 좋다.

*옴니바운스 – 내장플래시에는 흰 종이를 플래시 앞에 대는 편법을 사용하지만, 외장형 플래시에는 플래시 앞에 끼울 수 있는 옴니바운스 라는 액세서리가 있다. 이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플래시의 강한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디퓨저 – 플래시 앞부분에 장착하여 플래시에서 발산하는 빛을 확산시켜주는 장치로 빛의 확산을 통해 피사체에 발생하는 그림자를 보다 자연스럽게 처리를 도와주는 장치다. 주로 인물사진, 웨딩촬영, 간단한 소품촬영 등에 쓰임.

플래시는 카메라바디에 부착된 내장 플래시와 별도로 구입하는 외장플래시가 있다. 내장플래시는 피사체의 전면에서 플래시가 터지므로 그림자가 생기고 광량이 부족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담기가 어려워 기대치의 사진을 얻기가 쉽다. 이 때문에 한낮에 실내에서 내장 플래시를 터트리면 사진이 지나치게 밝게 나와 흐릿해 보이기도 한다. 실내에서도 자연광이나 실내조명만 이용하고 실내가 어둡다면 외장 플래시 사용을 권한다. 내장된 플래시를 이용할 때는 멀리 떨어진 인물을 찍으면 어둡게 나온다. 찍으려는 피사체 혹은 사람에게서 세 발걸음(약 2.7m) 이상 떨어지면 빛이 피사체에 영향을 못 미쳐서 어두운 사진이 되므로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 반면에 외장 플래시는 광량도 풍부하고 플래시의 각도도 자유로이 조절하므로 먼 거리의 피사체도 선명하고 부드럽게 담을 수 있다. 카메라 바디의 모드 조절처럼 외장플래시도 자동모드와 매뉴얼, TTL 등의 모드로 세팅을 해서 환경에 따라 사용한다. 초보자들은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따라 플래시 광량을 조절해주는 'TTL'(Through The Lens,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빛을 CCD에서 측정한다는 의미) 모드로 세팅하고 촬영할 것을 권한다. '옴니바운스'를 구입하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는데 필요한 확산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윤정인

생명의 숲 활동가로서 건강한 숲 가꾸기와 자연사랑에 나무와 들풀들을 하나씩 기록하다가 지치구의 문화원과 애니메이션고 평생 학습사진반 교육을 수료했다. 현재 남양주시 숲 가꿈이 생태해설사로 있으면서 길동생태공원 해설사들의 사진기초교육과 구리시 교문동 컴퓨터동아리 사진기초교육, 남양주시 자치센터 디카사진&포토샵 사진보정 교육 등을 담당하며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부이기도 하다. 또한 남편과 함께 사진여행을 하며 2년 뒤 남편의 '회갑전'을 계획하고 있다.